

한국어 특수조사의 의미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유현조·이정민

1. 서론

이 글은 류병래(1993)의 '도'와 '만'이 dual 관계라는 주장에서 실마리를 얻어, 한국어에서 '도, 는, 만'이 특수조사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다루어진다 는 점을 본다면 '도, 만' 둘 사이에만 어떤 관계가 성립할 것이 아니라 '도, 는, 만' 셋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성립할 것이라는 생각을 거쳐, 이들의 의미를 '양보, 부가; 화제, 대조; 제한'으로 해석하는 일반적인 논의에 바탕해, 이들 특수조사 사이의 관계를 다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류병래(1993) 비판

류병래(1993)는 '만'을 ONLY로, '도'를 ALSO로 나타낸 후 이 둘을 각각 전칭양화사와 존재양화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ONLY와 ALSO라는 기호로 나타낸 것이 정말로 한국어 특수조사 '만', '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만 짚는다'는 '짚는 것이면 모두 개다'로 '개도 짚는다'는 '짚는 것 중에 개가 있다'로 해석하여 각각을 전칭·존재양화사로 나타내고 있는 류병래(1993)의 주장을 따르면, '개는 짚는다'를 '개도 짚는다'와 구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는 짚는다', '개도 짚는다'는 공통적으로 '짚는 것 중에 개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들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개는 짚는다'는 관심이 되는 대상 중에 짚지 않는 것이 있다는 의미를 띠고, '개도 짚는다'는 대상 중에 개 말고도 짚는 것이 있다는 의미를 띠기 때문이다. 결국, '도'와 '만'을 dual 관계로 보는 것은 '도, 는'을 구별하지 않는 해석이고, 따라서 한국어 특수조사인 '도, 만'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ONLY와 ALSO로 기호화한 개념에 대한 해석일 뿐이며, 그것이 전칭양화사와 존재양화사로 형식화 가능한 것은 ONLY와 ALSO가 개념적으로 ALL, SOME과 동형관계에 있기에 당연한 것이다. 만약에 dual 관계를 설정한다면, 예를 들어, 주어 자리에서 따진다면, '만'의 의미와 나머지 다른 조사들 '이/가, 은/는, 도'가 공통으로 가지는 의미가 dual 관계라고는 할 수 있다.

3. 잠재 양화와 구체 양화

주어에 나타나는 조사의 의미에 대한 논의를 보자면, 일반적으로 '이/가, 은/는, 도, 만'을 '초점, 배타; 화제, 대조; 양보, 부가; 제한'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가, 은/는, 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형태가 같은 것을 무조건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려는 견해와 의미에 우선해 형태가 같더라도 다른 것으로 보려는, '양보', '부가'의 '도'를 '도1', '도2'로 보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도1'로, 부가의 의미를 띠는 것을 '도2'로 보려는 것은, 역사적인 음운변화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단순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전편찬이

나 교육에 쓰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론적으로 근거가 없으므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견해다. 그리고, 형태가 같은 것에 한가지 의미만 부여하는 관점은 문맥에 따라 확실히 다르게 해석되는 의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가치가 없다.

이 글에서는 두 주장을 모두 지양하면서, 그러나 형태가 같은 것을 우선 하나로 묶어보려는 시도에 동조하면서, '이/가, 은/는, 도'가 '초점, 화제,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와 '배타, 대조, 부가'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상호 무관한 것이 아니라, 기저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의 실현이 차원을 달리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들 조사의 의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우선,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자면, 사람들을 만나기로 하고 나가보니 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수가 왔네, 철수도 왔네, 철수는 왔네, 철수만 왔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또, 철수 말고 다른 몇 사람이 더 왔을 경우에도, '철수만 왔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철수가 왔네', '철수도 왔네', '철수는 왔네'라는 말을 할 수는 있다. 여기서 '가, 도, 는'은 '배타, 부가, 대조'의 뜻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초점, 양보, 화제'라는 의미를 가진다. 문장과 실제세계와의 대응관계를 통해 참거짓을 정해 그 문장의 의미를 밝히려는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서 쓰인 '가, 도, 는'은 술어에 대한 양화와는 전혀 무관하게 보이고, 심리적 차원에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화용론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예를 보자면,

갑 : 어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만났어요.

을 : 그래? 철수도 왔었니?

이런 대화에서라면, 을이 한 '철수도'라는 말에서 '도'는 '부가'의 의미를 가지면서 '왔었다'라는 술어를 양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 예문에서 갑, 을 사이를 대화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갑의 말 후에 을의 말이 발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갑의 말에 대한 반응으로서 을의 말이, 갑의 말에 바탕을 해서 을의 말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을이 말한 '도'는 '양보'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여기서 '도'는 언어를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관점, 즉 실제 세계와의 대응관계로서 참거짓을 판단하는 관점에서 양화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차원에서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초점, 화제, 양보'로 쓰인 '이/가, 은/는, 도'와 '배타, 대조, 부가'로 쓰인 것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둘에는 공통적으로 '철수'와 '왔다'가 있고, 차이점은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같은, 류병래(1993)에서 인용한 Jackendoff의 presupposition set에 해당하는¹⁾ 말이 구체적

1) 류병래(1993)은 '도, 만'을 Jackendoff의 presupposition set을 도입해 다음과

으로 실현되었는가 아닌가 뿐이다.

이 글에서는,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초점, 화제, 양보'로 쓰인 것은 presupposition set이 물리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양화로, '배타, 대조, 부가'로 쓰인 것은 presupposition set이 실현된 양화로 해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양화하는 것은 특수조사가 붙은 명사구(위 예문에서 보자면 '철수도')이고, 양화되는 것은 술어(위 예문에서 보자면 '왔다')와 presupposition set(위 예문에서 보자면, '양보'로 쓰인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정해지고, '부가'로 쓰인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의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각각을 심리적 또는 잠재적 양화, 물리적 또는 구체적 양화라 부르겠다.

지금까지 '만'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만'은 언제나 '제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심리적 양화와 구체적 양화를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것으로 '만'이 '이/가, 은/는, 도'와는 크게 구별되는데, 그 차이는 '만'이 다른 조사들에 비해 어휘성이 강해 항상 구체적인 의미를 실현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조사의 분포를 따져 보아도 '만'은 나머지 조사들과 결합해 '-만이, -만은, -만도'로 쓰일 수 있지만, '이/가, 은/는, 도'는 서로 연속해서 나타날 수 없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단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고,

	심리적	물리적
이/가	초점	화제
은/는	화제	대조
도	양보	부가
만	(제한)	제한

이것을 바탕으로 하면, '아무도'라는 말은 가능하지만 '아무만'이라는 말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아무'는 절대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없고 언제나 잠재적인 의미만 가질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아무도'가 반드시 '양보'의 의미만 가지며 '부가'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까닭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무가'와 '아무는'도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무도'가 반드시 '양보'의 의미만 가진다는 점의 위의 심리적 양화, 물리적 양화를 나누는 해석을 조금이나마 지지한다.

같이 형식화하고 있다.

$$A \text{ 만 } B \text{ 이다 } = \forall X[B(X) \rightarrow X \in P_q(A)]$$

$$A \text{ 도 } B \text{ 이다 } = \exists X[B(X) \wedge X \in P_q(A)]$$

여기서 P_q 가 presupposition set에 해당하는 것으로, A를 포함하고 B에 의해 서술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A'(즉, $\neq A$)를 포함하는 집합을 말하고, $P_q(A)$ 는, 류병래(1993)에서 새로 도입한 것으로, P_q 중 A만이 원소인 집합을 말한다.

이렇게 세운 관점에서 구체적인 언어현상을 설명해 보자면, 총칭구문에 관한 논의에서

인간은/??-이 생각하는 갈대다

와 같은 예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정의를 내리는 문장의 경우 대개 주어 가 화제가 되기 때문에 '이'가 쓰이면 어색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말도 문맥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다음 예를 보면,

갑 : 여자는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이 있지.

을 :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지.

갑의 '여자는'에서 '는'은 잠재적인 대조, 즉 심리 상황에 대한 양화의 기능을 하여 '화제'라고 불리며, 을의 대답에서 '인간이'의 '이'는 갑의 '여자는'과 대립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술어를 양화한다. 따라서 을의 말에는 '여자는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의 부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이/가'가 구체적으로 술어를 양화할 때 보이는 '배타'의 의미이다. 또 하나, 기존의 논의에서는 화제의 '은/는'은 전혀 대조의 뜻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글에서는 그 '화제'라는 것이 잠재적으로 대조를 가지고 있어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4. '도, 는, 만'의 관계

이 글에서는 '도, 는, 만'을 일반양화사의 관점에서 다루면서, Barwise & Cooper(1981)나 Keenan & Stavi(1986)에서 주장하는 관사와 일반명사가 결합한 것만이 일반양화사라는 주장에 반대하고, '도, 는, 만'이 사용된 모든 문장을 다루겠다. 즉, 주어나 목적어 뿐 아니라 부사구에 나타나거나 절에 나타난 경우에도 모두 일관성 있는 의미를 보이므로 모두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예를 들면, 다음 같은, 절에서 쓰이거나 부사구에서 쓰인 '만'도

철수가 올 때만 영화가 가는 것이 아니다

= 철수가 안 올 때도 영화가 간다

타조가 빠르게만 달리는 것이 아니다

= 타조가 빠르지 않게도 달린다

주어에 나타난 '만'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어만을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도, 는, 만'이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모든 구문이 대상이 되고, 그 때문에 앞에서 함께 논의하던 '이/가'는 지금부터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 는, 만'을 형식화하는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는 이 조사들 앞에 오는 요소로 양화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 다음은 이 조사들 뒤에 오는 요소로 양화되는 것, 마지막으로 이들 양화, 피양화의 테두리를 짓는, 즉 어떤

발화가 고려하고 있는 전체 범위를 규정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다.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약속을 하자면, '도, 는, 만'이 쓰인 구문을 간단히 표기하기 위해, 앞부분에 오는 것을 A, 뒷부분에 오는 것을 B라고 하겠다. 여기서 A와 B는 명사구도 부사구도, 그리고 절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고,

$$A\text{도/는/만 } B\text{이다} = \text{도}(A, B)/\text{는}(A, B)/\text{만}(A, B)$$

긍정과 부정은 각각 +와 -를 앞에 붙여 표기하겠다. 그리고, 류병래(1993)의 presupposition set에 대응하는 것을 P라고 하겠다. 이 P는 B로 서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류병래(1993)와 일치하면서, 그 발화의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들의 전체집합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겠다. '도, 는, 만'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것은 이렇게 A, B, P 세 가지다.

여기서 B뿐 아니라 not B도 양화된다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된다. 그리고 B인가 not B인가는 오로지 P의 내부에서만 문제가 된다. 시각을 달리해 보자면, P는 B로 서술되었을 때 참이 되는 부분과 거짓이 되는 부분으로 나뉘고, 각각이 모두 피양화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피양화부는 두 개인 셈이다. 류병래(1993)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은 'A만 B이다'라고 했을 때, 술어 B로 서술되는 부분만이 양화되는 것으로 보고, 시각을 달리해 술어 not B로 서술되는 부분도 양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만 B이다'는 'B인 것은 모두 A이고, B가 아닌 것은 모두 A가 아니다'로, 'A도 B이다'는 'A중 B인 것이 있고, A아닌 것 중에 B가 있다'로, 'A는 B이다'는 'A중 B인 것이 있고, A가 아닌 중에 B가 아닌 것이 있다'로 풀어 쓸 수 있고, 각각을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A\text{만 } B\text{이다} &= \forall X[B(X) \rightarrow A(X)] \wedge \forall X[\neg A(X) \rightarrow \neg B(X)] \\ A\text{도 } B\text{이다} &= \exists X[B(X) \wedge A(X)] \wedge \exists X[\neg A(X) \wedge B(X)] \\ A\text{는 } B\text{이다} &= \exists X[B(X) \wedge A(X)] \wedge \exists X[\neg A(X) \wedge \neg B(X)] \end{aligned}$$

위에서 '만'을 논리식으로 나타낸 것의 앞과 뒤는 동어반복적인 것인데, 이렇게 쓴 표기한 까닭은 '도, 는'과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A만 B이다'의 부정은

$$\neg \forall X[B(X) \rightarrow A(X)] \wedge \neg \forall X[\neg A(X) \rightarrow \neg B(X)]$$

으로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부정을 안으로 이동시키면,

$$\exists X[B(X) \wedge \neg A(X)] \wedge \exists X[\neg A(X) \wedge B(X)]$$

이 된다. 여기서 앞과 뒤가 똑같이 나오는 것은 앞에서 동어반복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듯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도'와 비교해 보면, 앞부분에서 A의

부호만 바뀌고, 뒷부분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 'A만 B이다'의 부정은 'not A도 B이다'와 의미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는'과 비교해 보면, 앞부분에서는 A의 부호가 바뀌고, 뒷부분에서는 B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만'과 '는'의 관계에서 A와 B의 부호가 모두 바뀌게 되는데, 위 '만'을 나타낸 수식에서 앞과 뒤는 실제로는 하나이고, '는'의 앞과 뒤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념상 두 번의 부정이 필요하고, 결국 'A만 B이다'의 부정의 부정이 'not A는 not B이다'와 의미가 같게 된다.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도, 는, 만'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다음은 류병래(1993)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문들이고, 그 아래 각각을 앞에서 약속한 표기로 나타낸 것이 그 아래 있다.

비회원만 안 온 것이 아니다 = 회원도 안 왔다
회원만 안 온 것이 아니다 = 비회원도 안 왔다
비회원만 온 것이 아니다 = 회원도 왔다
회원만 온 것이 아니다 = 비회원도 왔다

-만(-A, -B) = 도(+A, -B)
-만(+A, -B) = 도(-A, -B)
-만(-A, +B) = 도(+A, +B)
-만(+A, +B) = 도(-A, +B)

다음은 '만'과 '은/는'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문들로, 역시 각각을 간단히 표기한 것이 있다.

비회원만 안 왔다 = 회원은 왔다
회원만 안 왔다 = 비회원은 왔다
비회원만 왔다 = 회원은 안 왔다
회원만 왔다 = 비회원은 안 왔다

만(-A, -B) = 은(+A, +B)
만(+A, -B) = 은(-A, +B)
만(-A, +B) = 은(+A, -B)
만(+A, +B) = 은(-A, -B)

이 두가지 예문은 '만, 도'의 관계와 '만, 는'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관계에서 '도, 는'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데, 우선 '도, 는, 만'의 관계를 한번에 보자면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만(+A, +B) = -도(-A, +B) = +는(-A, -B)

여기서 '도, 는'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문들을 만들자면, 다음과 같은데,

비회원도 안 온 것이 아니다 = 비회원은 왔다
 회원도 안 온 것이 아니다 = 회원은 왔다
 비회원도 온 것이 아니다 = 비회원은 안 왔다
 회원도 온 것이 아니다 = 회원은 안 왔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어색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라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갑 : 회원도 왔니?
 을 : 아니, 회원은 안 왔어.

갑 : 비회원도 왔니?
 을 : 아니, 비회원은 안 왔어.

'도, 는, 만'의 관계를 정리하자면, '만'과 '도'가 일종의 dual관계이고, '도'와 '는'도 일종의 dual 관계로, 따라서 '만'과 '는'은 일종의 이중 dual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류병래(1993)의 left-right internal negation을 이용해 표현한다면²⁾,

EN(만)=R-IN(도)
 EN(도)=L-IN(는)
 R-IN(만)=L-IN(는)

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R-IN : right internal negation, L-IN : left internal negation, EN = external negation으로 표기하기로 하고,

EN(Q) = POW(E)- Q
 IN(Q) = {Y|Y⊆E and there is an X∈Q|Y=E-X}
 R-IN(Q) = {(X, Y)|(X, Y)∈POW(Q)×POW(Q)|(X, E-Y)∈Q}
 L-IN(Q) = {(X, Y)|(X, Y)∈POW(Q)×POW(Q)|(E-X, Y)∈Q}

참고문헌

- 김윤신(1995), '아무'의 의미에 대한 연구, 언어학 연구 제26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 이정민(1992),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Topic)/초점 - 개체 층위 술어 와도 관련하여-", 국어학 22(1992), pp.397-424.
- Barwise, Jon and Robin Cooper(1981), "Generalized Quantifiers and Natural Language", *Linguistics and Philosophy* 4, pp. 159-219.
- Hirtle, Walter H.(1988), "Some and any: exploring the system", *Linguistic* 26, Mouton de Gruyter, Amsterdam, pp.443-477.
- Jackendoff, Ray(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Keenan, Edward L. and Jonathan Stavi(1986), "A Semantic Characterization of Natural Language Determiners", *Linguistics and Philosophy* 9, pp.253-326.
- Ryu, Byong-Rae(1993), "Negation, Dual Negation, and Duality of Determiners", Proceedings of the Workshop on the Interface Areas in Korean Linguistics(July 17-18, 1993), The Ohio State University, USA.